

肥滿症의 原因과 病機 및 治法에 관한 文獻的 考察

趙洪健·金炳卓*

I. 緒 論

肥滿은 一般的으로 過體重狀態를 意味하지만 엄격히는 體內에 脂肪組織이 특히 過多하게 蓄積되어 있는 狀態를 말하는 것¹⁾으로 輕度の 肥滿은 해롭지 않으나 심한 肥滿은 健康障礙를 招來하며 高血壓(hypertention)·成人性糖尿病(noninsulin dependent diabetes mellitus)·高脂蛋白血症(hyperlipoproteinemia)·膽石症(cholelithiasis)·癌(cancer)·卒中症(stroke)·狹心症(angina pectoris) 및 變性關節疾患(osteoarthritis) 등의 重要的 素因이 된다²⁾는 점에서 중요시 인식되고 있다.

肥滿症은 單純性肥滿症과 症候性肥滿症(續發性肥滿症)으로 大別^{3,4)}하는데 單純性肥滿症은 過食과 運動不足이 原因으로 體質因子나 環境因子와도 關聯이 있으며, 症候性肥滿症은 內分泌疾患·視床下部疾患·頭部外傷·腦炎·腦腫瘍 등에 의하여 二次的으로 일어난다⁵⁾.

韓醫學에서는 肥滿症에 대하여 《素問 通評虛實論》⁶⁾에서 “肥貴人, 則高粱之疾也”라고 하여 高粱한 飲食을 多服하여 發生하는 것이라고 最初로 言及한 以來, 先天稟賦 過食肥甘厚味 久臥久坐 活動過少와 外感濕邪 및 內傷七情 등으로 인하여 氣滯 痰濁 水濕 및 血瘀 등이 肥滿症을 誘發한다고 하였다⁷⁾.

現代臨床에 있어 肥滿症의 治療에 有效하였다는 韓方處方으로는 輕身丸·大柴胡湯·防風通聖散·大承氣湯·柴胡加龍骨牡蠣湯·瀉脾湯·二陳湯·二四湯·減肥輕身方 및 消肥湯 등⁸⁻¹¹⁾이 있으며, 實驗的 研究를 통하여 滲濕湯·加味滲濕湯¹²⁾ 등의 效能이 立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現代 成人病中の 하나인 肥滿症에 관하여 많은 研究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明確히 定理된 文獻은 없는 實情이다.

이에 著者는 肥滿症의 病因과 病機 및 治法을 明確히 밝혀 韓方臨床活用に 도움이 되고자 歷代文獻과 最近의 臨床研究를 綜合的으로 整理하여 比較考察하였던 結果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및 考案

肥滿症은 體內에 脂肪이 過多하게 蓄積된 것으로 醫學上 肥滿의 判定은 體重이 標準體重 [身長(cm)-100 x 0.9] 보다 20% 以上 增加된 경우를 말한다¹³⁻¹⁶⁾. 肥滿症의 發生率은 社會的 與件에 따라 크게 다르며, 美國과 같은 나라에서는 低所得層에 많고 年齡의 增加에 따라 增加하고 있다¹⁷⁾.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病理學敎室

肥滿症은 칼로리攝取가 身體活動과 成長에 必要한 energy보다 超過될 때 일어나며 그 結果 脂肪質의 蓄積이 오고 이 脂質은 脂肪組織內에 貯藏되고 餘分의 脂肪組織은 全身에 골고루 分布되기도 하고 局所的으로 存在하기도 한다. 肥滿症은 食品供給이 充足하고 얕아서 일하는 作業에 從事하는 까닭에 必要量보다 많은 食物을 攝取하기 쉬운 나라에서 흔히 있는 疾患으로 脂質의 過剩蓄積은 動脈硬化症 糖尿病 關節炎 등의 退行性疾患의 發生頻度を 增加시킨다¹⁸⁾.

1. 肥滿症의 原因과 病機

西洋醫學에서는 肥滿症을 單純性肥滿症과 症候性肥滿症으로 大別¹⁹⁾하고 있으며, 그 原因으로 營養性 體力活動減少 遺傳 神經性 內分泌疾患 醫原性 水滯留性 및 心理的 要因 등을 들고 있다²⁰⁾.

營養性은 高칼로리食과 高脂肪低蛋白食의 過食 등을, 遺傳은 Laurence-Moon-Biedl 綜合症과 Morgagni-Stewart-Morel 綜合症 및 Prader-Willi 綜合症 등을, 內分泌疾患으로는 甲狀腺機能低下症 卵巢切除 多囊卵巢綜合症 痛性肥滿 妊娠 등을, 神經性은 外傷이나 惡性腫瘤 或은 炎症 등으로 下丘腦가 損傷하여 나타나는 丘腦性肥滿과 Kleine-Levin 綜合症 등을, 醫原性은 藥物로 起因하는 것으로 避妊藥 스테로이드제제의 濫用 인슐린이나 血糖降下劑의 誤用 cyproheptadine과 같은 食慾中樞에 作用하는 藥物 등을 말하고, 水滯留性은 明確한 原因이 없는 것이며, 心理的 要因으로는 憂愁나 精神刺戟으로 인한 攝食過多를 말한다^{21, 22)}.

東洋醫學에 있어서 肥滿症의 原因에 關한 最初의 言及은 《黃帝內經》으로 <素問 通評虛實論>²³⁾에 “肥貴人, 則高粱之疾也”, <素問 奇病論>²⁴⁾에 “此肥美之所發也, 此人必數食甘美而多肥也, 肥者令人內熱, 甘者令人中滿, 故其氣上溢 轉爲消渴”, <靈樞 壽夭剛柔>²⁵⁾에 “余聞人之生也, 有剛有柔, 有強有弱, 有短有長, 有陰有陽”, <靈樞 根結>²⁶⁾에 “逆順五體者, 言人骨節之大小, 肉之堅脆, 皮之厚薄, 血之清濁, 氣之滑澁”, <靈樞 逆順肥瘦論>²⁷⁾에 “肥人也……其爲人也, 貪於取與”, “年質壯大, 氣血充盛, 膚革堅固……此肥人也” 등을 言及하였으며, 張介賓²⁸⁾은 <素問 通評虛實論>의 “肥貴人, 則高粱之疾也”에 대하여 “高粱, 膏粱也. 肥貴之人, 每多厚味, 夫肥者令人熱中, 甘者令人中滿, 熱蓄于內, 多傷其陰, 故爲此諸病”이라고 注하여 高粱한 飲食을 자주 먹게 되면 內部에 熱이 蓄積되어 陰을 傷하므로 本病이 發生된다고 하였다. 《黃帝內經》以後의 여러 醫家說을 살펴보면 張介賓²⁹⁾은 “肥者, 味厚助陽, 故能生熱”를, 劉河間³⁰⁾은 “血實氣虛則肥……肥人……腠理緻密而多鬱滯, 氣血難以通利”를, 李東垣³¹⁾은 “脾胃俱實, 則能食而肥, 脾胃俱虛, 則不能食而瘦, 或少食而肥, 雖肥而四肢不舉, 蓋脾實而邪氣盛也”를 言及하였고, 朱震亨³²⁾은 “肥者氣必急, 氣急必肺邪盛, 肺金克木”을, 李中梓³³⁾은 “人肥必氣結而肺盛, 肺金剋肝木, 故痰盛”을, 陳士鐸³⁴⁾은 “肥人多痰, 乃氣虛也, 虛則氣不能運行, 故痰生之”를 言及하였다. 喻嘉言³⁵⁾은 “肥而且貴, 醇酒厚味, 孰爲限量哉, 久之飲食釀成內熱, 津液乾涸, 求濟于水, 然水入向能消之也, 愈消愈渴, 其膏粱愈無已”를, 傅青主³⁶⁾은 “婦人有身體肥胖, 痰涎甚多, 乃脾土之內病也”를 言及하였으며, 陳修園³⁷⁾은 “大抵素稟之盛, 從無所苦, 惟是濕痰頗多”를, 徐大椿³⁸⁾은 “人稟天地之氣以生, 故其體隨地不同, 西北之人氣深而厚……東南之人氣浮而薄”과 “肥人多痰”을 言及하였고, 葉天士³⁹⁾는 “形肥經少, 此痰癭經逐也”를, 康命吉⁴⁰⁾은 “壯年肥盛者……形盛氣衰然也”를 原因으로 言及하였다.

以上の 歷代醫書에서 言及되었던 內容들을 綜合하여 보면 <素問 通評虛實論>의 “高粱之疾”, <靈樞 逆順肥瘦論>의 “貪於取與”, <素問 奇病論>의 “數食甘肥” 및 李東垣이 言及한 “能食而肥”, 張景岳이 言及한 “味厚”, 喻嘉言이 言及한 “醇酒厚味” 등은 肥甘

厚味한 高粱飲食이 肥滿을 誘發하는 原因이 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飲食들은 脾胃의 運化機能에 影響을 미쳐 熱이나 痰, 濕 등을 쉽게 誘發한다⁴¹⁾고 하였는데 現代醫學의 高칼로리食과 高脂肪食이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靈樞 壽夭剛柔>와 <靈樞 根結>에서 言及된 內容은 肥滿과 遺傳이 關係가 있음을 言及한 것으로 생각되며, 徐大椿은 地理環境的인 要因과 肥滿이 相關性이 있다고 主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外의 原因들로는 氣虛, 形盛氣衰, 脾胃俱實, 濕, 痰(痰涎), 濕痰, 脾土之病 등이 言及되었는데 氣虛, 氣衰, 脾土之病과 같은 原因들은 脾胃의 運化機能을 無力케 하는 原因이 되고 濕이나 痰과 같은 原因들은 體內的 代謝過程 失調로 인하여 나타나는 病理的 產物인 同時에 體內的 代謝過程을 失調케 하는 要因도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最近의 醫書와 臨床報告 등에서 言及된 肥滿症의 原因으로 《中醫症狀鑑別診斷學》⁴²⁾에서는 痰濕內蘊과 氣虛를, 裴元植⁴³⁾은 濕痰을 言及하였고, 奚彩莛⁴⁴⁾은 外因으로 飲食過多 營養過剩 活動過少와 內因으로 遺傳과 體質을, 邱仕君⁴⁵⁾은 先天稟賦 過食肥甘 厚味 久臥久坐 活動減少 外感濕邪 內傷七情을 言及하였으며, 陳瑞英⁴⁶⁾은 食滯中焦 肝腎陽虛 脾土虛弱 脾胃積熱 痰濕內停을, 申屠瑾⁴⁷⁾은 脾虛濕痰 胃熱濕阻를 言及하였다. 塗建中⁴⁸⁾은 濕阻氣滯 脾腎陽虛 肝熱挾濕 風濕挾熱을, 周文泉⁴⁹⁾은 氣虛 痰濁을, 江幼李⁵⁰⁾는 濕 痰 水 瘀를, 姬孝斌⁵¹⁾은 先天稟賦 過食肥甘 厚味 久臥久坐 而少動 外感濕邪 七情內傷을, 林學意⁵²⁾는 濕濁內盛 痰瘀交阻를, 王光權⁵³⁾은 脾虛 濕 痰을, 李振凜⁵⁴⁾은 氣虛 濕滯 濕熱內蘊을, 趙銀龍⁵⁵⁾은 濕痰과 積熱을, 曲竹秋⁵⁶⁾은 脾腎氣虛 痰濕內停을, 王富春^{57, 58)}은 濕痰을, 顧兆軍⁵⁹⁾은 脾虛 濕盛을 言及하였다.

以上에서 言及되었던 諸家들의 肥滿症의 原因說들을 모두 綜合하여 살펴보면 肥滿症의 原因은 크게 體內的 代謝過程의 失調로 나타나는 內的인 要因과 飲食이나 勞倦등의 外的인 要因으로 分類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虛와 實의 兩方面으로 分類해 볼 수 있다.

먼저 內的인 原因에 該當하는 것으로는 氣虛(氣衰) 濕 痰(痰濁, 痰涎) 濕熱 水 瘀 濕痰 痰瘀 積熱 內傷七情 肝腎陽虛 脾土虛弱(脾虛) 脾胃積熱 濕阻氣滯 脾腎陽虛 肝熱挾濕 風濕挾熱 脾腎氣虛 등이 이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外的인 原因에 該當하는 것으로는 高粱厚味の 過食(營養過剩) 先天稟賦 久臥久坐 活動減少 外感濕邪 등이 이에 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다시 虛實로 分類하여 보면 虛에 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氣虛 久臥久坐와 같은 活動減少 脾腎陽虛 脾土虛弱(脾虛) 肝腎陽虛 脾腎氣虛 등이 이에 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實에 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高粱厚味の 過食(多食) 濕 痰(痰濁) 濕痰 外感濕邪 食滯中焦 脾胃積熱 胃熱濕阻 濕阻氣滯 積熱 水 瘀 肝熱挾濕 風濕挾熱 등이 이에 該當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 외에 虛實分類로 區分하기 어려운 先天稟賦와 七情內傷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肥滿症의 原因에 關한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內的인 要因으로는 氣虛와 陽虛 濕 痰 熱 水 瘀 血 및 內傷七情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外的인 要因으로는 活動減少 外感濕邪 營養過剩 및 先天稟賦로 要約할 수 있으니 다음 表와 같다. (圖表 1)

< 圖表 1 > 肥滿症의 原因

	虛 證	實 證	其 他
內	氣虛 : 脾虛, 陽虛	濕과 痰 및 熱 : 痰濁,	內傷七情

的 要 因	脾腎氣虛, 脾腎陽虛 肝腎陽虛, 氣衰	濕痰, 濕阻氣滯, 積熱 脾胃積熱, 胃熱濕阻, 肝熱挾濕, 風濕挾熱, 水, 瘀血, 脾胃俱實	
外 的 要 因	活動減少 : 久臥久坐	外感濕邪 營養過剩: 肥甘厚味한 高粱飲食의 過食, 多食	先天稟賦

前述한 肥滿症의 原因을 中心으로 그 病機를 살펴보면 歷代文獻에서는 그 病機가 明確히 言及되지는 않았으나 張介賓⁶⁰⁾은 “厚味를 多食하면 熱中케 하고 熱이 内部에 쌓이면 陰을 傷케 하여 病이 된다.” “厚味는 助陽하므로 能히 熱을 生한다.” 라고 하여 高粱厚味가 熱을 發生함을 言及하였고, 喻嘉言⁶¹⁾은 “醇酒厚味와 같은 高粱厚味는 內熱을 이루며 이 熱은 津液을 乾瘧한다.” 고 하였다. 李中粹⁶²⁾는 “사람이 肥하면 반드시 氣가 結하며 肺盛하는데 肺는 肝을 剋하므로 痰이 盛하게 된다.” 라고 하였으며, 陳士鐸⁶³⁾은 “虛하여 氣가 運行하지 못하면 痰을 生한다” 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內容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歷代醫書에서 言及된 肥滿의 病機는 仔細하지 못하며 이들은 前述한 바와 같이 病因과 同時에 病機까지도 함께 言及한 것으로 보여지나 張景岳과 喻嘉言은 肥甘厚味한 高粱飲食은 熱을 生케 하고 이 熱은 津液을 損傷시키며 津液이 損傷되면 肥滿이 惹起된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陳士鐸은 肥滿의 誘因은 痰이지만 痰을 生成케 하는 原因은 氣虛라고 하여 氣虛하여 痰이 生하면 肥滿이 된다는 것으로 康命吉이 言及한 形盛氣衰와 같은 意味로 理解할 수 있다.

最近의 文獻이나 臨床報告에서 言及되었던 肥滿症의 病機에 대하여 살펴보면 《中醫症狀鑑別診斷學》⁶⁴⁾에서는 痰濕內蘊肥滿은 飲食失調나 長期間의 食欲亢進 및 高粱厚味の 偏食으로 인하여 脾의 健運作用이 失調되므로 濕痰이 生하여 肥滿이 되고 氣虛肥滿은 勞倦傷氣나 飲食不節로 脾氣가 損傷을 받으면 肥滿이 된다고 하였다. 周文泉⁶⁵⁾은 脾腎氣虛하면 運化輸布機能이 失調케 되고 清濁이 混淆하며 精血로 化하지 못하여 痰濁이 內蓄하므로 肥滿이 되고 久臥久坐와 같은 活動減少는 氣虛氣鬱하므로 運化無力하여 轉輸失調하므로 肥滿이 되며 內傷七情은 肝氣鬱滯를 惹起하여 肝膽의 疏泄機能이 失調하므로 脾의 健運作用과 氣機의 升降轉輸作用에 影響하여 濁脂가 內蓄하여 肥滿이 된다고 하였으며, 江幼李⁶⁶⁾는 濕은 體內水穀津液의 輸布에 影響을 미치고 水는 濕이 轉化하여 積聚되어 이루어 진 것으로 水液의 滯留나 代謝障礙가 되어 肥滿이 된다고 하였다. 谷竹秋⁶⁷⁾은 肥滿을 惹起하는 要因으로 肝木疏泄의 失調는 氣化機能을 하여 痰濁이나 水濕 등을 停蓄케 하여 이루어 진다고 하였고, 趙銀龍⁶⁸⁾은 肥甘이나 醇酒厚味를 長期間 多食하면 이들은 中焦脾胃에 壅阻하여 脾胃의 運化機能이 失常케 되고 오래되면 內熱을 이루는데 熱이 盛하면 津液을 灼하고 陰津이 耗傷하면 飲食을 救하게 되므로 飲食攝取가 旺盛케 된다고 하여 그 病機를 仔細히 說明하였으며, 姬孝斌⁶⁹⁾은 脾氣不足은 轉輸를 못하게 하므로 化氣行水作用과 化生精血作用 및 精微를 輸布하고 周身을 充養케 하는 作用이 不能하여져서 膏脂痰濕을 生하게 하여 肥滿이 되고 腎氣不足은 正常的인 化氣行水와 助脾健運 및 通調水道하는 機能을 못하게 하여 痰濁이 內停하므로 肥滿이 된다고 하였다.

以上에서 言及된 肥滿症의 病機를 綜合하여 보면 高粱厚味한 飲食을 過食하거나 多食하면 脾胃의 運化作用을 失調케 하고 脾胃의 運化機能이 失調되면 熱을 發生하며 熱

이 盛하면 津液을 灼하고 陰津이 耗傷하여 飲食을 救하게 되므로 飲食攝取가 旺盛케 되어 肥滿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氣虛하면 運化機能이 無力하여지고 二次的으로 濕痰이 發生하여 肥滿을 惹起하며, 濕痰은 體内の 水液代謝機能이 失調하여 나타난 病理的 產物임과 同時에 體内の 水液代謝를 失調케 하는 要因으로 濕痰이 體内に 形成되면 肥滿을 惹起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氣虛와 濕痰과의 關係는 密接한데 氣虛하면 水濕을 運化하는 機能이 無力하여져서 二次的으로 濕痰을 誘發시키며 반대로 濕痰이 體内に 形成되면 氣의 運行을 無力하게 하므로 氣虛를 誘發하기도 하는 相互轉化하는 屬性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以上の 病機를 要約하여 보면 肥甘厚味한 飲食은 脾胃의 運化機能을 無力하게 하고, 脾胃의 運化機能이 無力하면 그 病理的 產物로 濕痰 등이 나타나며, 濕痰은 水液代謝의 失調로 인한 病理的 產物임과 同時에 體内の 運化機能을 無力케 하는 病因으로도 作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內傷七情은 臟腑機能에 影響을 주어 肥滿을 惹起하는데 특히 七情所傷은 肝氣鬱滯를 惹起하여 脾胃의 健運作用에 影響을 미침으로써 肥滿이 惹起된다고 說明하였다.

肥滿症과 臟腑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주로 脾와 肺 및 腎이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肥滿症을 惹起하는 主要因인 濕이나 痰과 같은 因子들은 人體의 水液代謝가 失調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人體의 水液代謝는 主로 肺의 宣發과 肅降, 脾의 運化輸布 및 腎의 蒸騰氣化와 같은 機能과 密接한 關聯이 있다. 따라서 脾, 肺, 腎의 機能障導로 인하여 人體의 水液代謝가 失調하면 體内に 濕이나 痰과 같은 產物이 生成되고 이러한 病理的 產物은 肥滿症을 惹起하는 原因이 된다는 점에서 이처럼 생각할 수 있으며, 脾는 生痰之源으로 水液代謝를 主管하며 水穀精微와 水濕의 運化를 主한다는 점에서, 肺는 貯痰之源으로 宣發과 肅降을 主하며 通調水道하여 水液代謝를 促進하고 代謝平衡을 維持한다는 점에서, 腎은 痰을 生하는 根源(先天之痰)으로 人體의 水液代謝를 主管한다는 점에서 肥滿과의 關聯이 깊은 것으로 思料된다. 臟腑中에서도 특히 脾와의 關聯性이 보다 密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脾가 運化를 主하여 水穀精微와 水濕의 運化를 主管하며 肥滿을 誘發하는 濕痰과 같은 病理的 產物이 脾胃의 運化機能 失調와 水液代謝失調로 인하여 發生된다는 점에서 脾와의 關聯이 더욱 클 것으로 推測된다.

이러한 肥滿症의 病因에 따른 病機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 ① 氣虛 → 運化輸布機能失調 → 清濁相混 → 痰濁內蓄 → 成肥滿
- ② 活動減少 → 氣虛氣鬱 → 運化無力 → 轉輸失調 → 成痰濁 → 成肥滿
- ③ 內傷七情 → 肝氣鬱結 → 疏泄失調 → 脾胃健運 및 升降機能의 失調
→ 痰濁內聚 → 成肥滿
- ④ 痰濕 → 痰濁阻滯 → 脾胃運化失調 → 成肥滿
- ⑤ 營養過剩(多食高梁厚味) → 生痰濕 → 水液運化不能 → 成肥滿

以上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肥滿症은 主로 脾의 運化機能이 失調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濕痰은 脾의 運化機能失調로 나타나는 二次的 病理的 產物인 同時에 다른 原因들에 의하여 濕痰이 體内に 形成되면 이들은 다시 脾의 運化機能에 障導를 주어 肥滿症을 이루는 것으로 推測된다.

2. 肥滿症의 治療

肥滿症의 治療를 위하여 西洋醫學에서는 食餌療法·運動療法·藥物療法 및 外科의 治療法과 心身醫學의 治療로서의 行動療法를 活用⁷⁰⁾하고 있다.

東洋醫學에서의 肥滿症의 治療에 관한 內容을 살펴보면 《成人病의 豫防과 治療》⁷¹⁾

에서는 三黃丸·防風通聖散·苓桂朮甘湯·防己黃耆湯·桂枝茯苓丸 등을 活用한다고 하였으며, 《心身症》⁷²⁾에서는 加味歸脾湯과 二陳湯을, 《東醫肝系內科學》⁷³⁾에서는 減脾湯과 抑肥湯을 活用한다고 하였고, 裴元植⁷⁴⁾은 全蟲·石斛·當歸·天麻·甘草·細辛·荊芥·防風·麻黃·草烏·朱砂·天烏·羌活·白芷·何首烏·草龍膽·龍腦로 構成된 輕身丸을, 朴炳昆⁷⁵⁾은 大柴胡湯·防風通聖散·大承氣湯·柴胡加龍骨牡蠣湯·防己黃耆湯·歸脾湯·二陳湯合四物湯 등을 治療處方으로 提示하였다.

奚彩菟⁷⁶⁾은 益氣補腎·祛濕滌痰法을 主張하면서 黃耆·澤瀉·薄荷·山查·何首烏·大黃·白芥子·元胡로 構成된 康靈減肥合劑를 活用하였고, 周文泉⁷⁷⁾은 健脾益氣·利水除濕·祛痰化濁·補腎調肝·通腑化積·活血 등의 治法과 黃耆·防己·茯苓·白朮·澤瀉·薄荷·山查·蒼朮·草決明·茵陳·何首烏·川芎·大黃등을 提示하였으며, 張超⁷⁸⁾은 疏肝利膽·活血化癥·理肺化痰·健脾利水등의 治法을 提示하였다. 顧兆軍⁷⁹⁾은 健脾利濕法을, 張炬⁸⁰⁾은 益氣養陰·化痰利濕法을, 王富春⁸¹⁾은 利濕祛痰을 治法으로 提示하였고, 曲竹秋⁸²⁾은 條達肝木·健運中州·升降三焦·運化水濕法과 柴胡·白芍·烏梅·茯苓·薄荷·澤瀉 등의 藥物을 提示하였으며, 塗建中⁸³⁾은 實證인 경우에는 防風通聖散·大柴胡湯·大承氣湯·桃核承氣湯을 虛證인 경우에는 防己黃耆湯·五苓散合九味檳榔湯을, 虛實中間에는 桂枝茯苓丸·柴胡加龍骨牡蠣湯·九味半夏湯을 活用한다고 하였다. 劉樹華⁸⁴⁾은 檳榔·厚朴·草果·知母·黃芩·白芍·甘草로 構成된 達原飲을 治方으로 提示하였고, 姬孝斌⁸⁵⁾은 利濕化濁·活血化癥法과 桃仁·紅花·川芎·當歸·澤蘭·白朮·蒼朮·澤瀉·半夏·皂角·益母草·茯苓·白礬으로 構成된 消肥湯을 提示하였으며, 邱仕君⁸⁶⁾은 脾虛痰濕型에는 健脾燥濕·祛痰化濁法과 異功散·參苓白朮散·枳朮丸 등을, 脾胃實熱型에는 清胃通腑·涼血潤腸法과 增液承氣湯을, 氣滯血瘀型에는 理氣活血化癥法과 失笑散合血府逐瘀湯을, 脾胃陽虛型에는 健脾溫腎法과 苓桂朮甘湯合濟生腎氣丸을 提示하면서 草決明·何首烏·女貞子·大黃·虎杖·山查·丹參·三七·桃仁·澤瀉·鬱金·柴胡·茵陳·金櫻子·蒲黃 등의 藥物을 選用한다고 하였다. 江幼李⁸⁷⁾는 化濕·祛痰·利水·通腑·消導·疏肝利膽·健脾·溫陽法을 提示하면서 化濕에는 二朮四苓湯·澤瀉湯·防己黃耆湯을, 祛痰에는 控涎丹을, 利水에는 五皮飲·導水茯苓湯·小分清飲·舟車丸·十棗湯을, 通腑에는 小承氣湯·調胃承氣湯을, 消導에는 三仙飲·保和丸을, 疏肝利膽에는 溫膽湯·疏肝飲·消脹散을, 健脾에는 異功散·枳朮丸·五苓散·參苓白朮散 등을, 溫陽에는 濟生腎氣丸·甘草附子湯·苓桂朮甘湯을 提示하였다.

以上과 같은 肥滿症의 治療에 관한 內容中에서 肥滿症治療에 대한 治法들을 綜合하여 보면 虛證인 경우에는 健脾·益氣·補腎·溫陽·養陰하는 治法을 주로 應用하며, 實證인 경우에는 祛濕(化濕)·化痰(祛痰)·利水·消導·活血·化癥·通腑하는 治法을 주로 應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 疏肝利膽·升降三焦하는 治法을 用하고 있는 것으로 要約할 수 있으나 虛證에는 주로 健脾法을 多用하였으며 實證에는 祛濕除痰法을 주로 使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圖表 2)

〈 圖表2 〉 肥滿症治療에 관한 治法

虛	健脾爲主, 益氣, 補腎, 溫陽, 養陰
實	祛濕(化濕)化痰(祛痰)爲主, 利水, 消導, 活血, 化癥
其他	疏肝利膽

한편 肥滿症의 治療에 活用된 處方이나 藥物들은 多數가 提示되고 있으나 韓醫學은 辨病論治가 아닌 辨證論治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研究는 繼續되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이들의 效能에 관한 實驗的 研究도 아울러 竝行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肥滿症의 治療에 適合하다고 提示된 主處方이나 主藥物들을 綜合하여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圖表 3)

肥滿症의 病機와 治療法을 綜合하면 肥滿症의 治療에 있어 補氣健脾하면서 兼하여 祛濕化痰하는 治法을 臨床에서 應用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肥滿症을 誘發하는 主要因이 氣虛와 濕痰으로서 氣虛하면 運化機能이 無力해져서 二次的으로 濕痰을 生하고 濕痰은 脾胃의 運化機能을 無力케 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思慮된다.

< 圖表 3 > 肥滿症의 治方 및 藥物

		治 方	藥 物
虛 證	補氣健脾	防己黃耆湯, 參苓白朮散 異功散, 苓桂朮甘湯 柴胡加龍骨牡蠣湯 歸脾湯類,	黃耆, 白朮, 甘草
	溫陽	濟生腎氣丸, 甘草附子湯	
	補血養陰	增液承氣湯 四物湯	何首烏, 石斛, 當歸, 川芎, 白芍藥
實 證	祛濕	二朮四苓湯, 澤瀉湯, 五皮飲 五苓散, 導水茯苓湯, 舟車丸 小分清飲, 防己黃耆湯	澤瀉, 防己, 茯苓, 蒼朮
	祛濕熱		茵陳
	清熱 (積熱)	防風通聖散, 大柴胡湯 大承氣湯, 桃核承氣湯 三黃丸	知母, 黃芩, 大黃
	消導	枳朮丸, 三仙飲, 保和丸	山楂
	化痰	控涎丹, 柴胡加龍骨牡蠣湯 二陳湯	白芥子, 半夏
	活血化瘀	失笑散, 桃核承氣湯 血府逐瘀湯, 桂枝茯苓丸	丹參, 鬱金, 桃仁, 紅花, 澤蘭, 益母草
其 他	疏肝利膽	溫膽湯, 疏肝飲, 大柴胡湯	柴胡

Ⅲ. 結 論

肥滿症의 原因과 病機 및 治法을 明確히 밝혀 韓方臨床活用に 도움이 되고자 歷代文獻과 最近의 臨床研究를 綜合하여 比較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肥滿症의 原因은 주로 氣虛, 痰濕, 內傷七情, 活動減少, 高粱厚味の 多食 및 先天稟賦 등으로 나타났다.
2. 肥滿症의 病機는 주로 脾胃의 運化機能의 失調로 인하여 水濕이나 痰濁이 形成되어 發生하거나 濕痰 등이 脾胃의 運化機能에 障礙를 주어 形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肥滿症과 關聯이 있는 臟腑로는 주로 脾, 肺, 腎과의 關係가 密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脾와의 關聯性이 가장 密接한 것으로 思慮된다.
4. 肥滿症의 治療에 使用된 治療法으로는 虛證에는 健脾, 益氣, 補腎, 溫陽, 養陰法 등을 주로 活用하였고 實證에는 祛濕, 化痰, 利水, 活血, 化癆, 消導法 등을 주로 活用하였으며 이 외에도 疏肝利膽法도 活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5. 臨床에 있어 肥滿症의 治療에 應用해볼 수 있는 治療法은 健脾益氣하면서 兼하여 祛濕化痰하는 治法이 效果的일 것으로 思料된다.

脚 註

1. 醫學教育研修院 : 症狀別臨床檢査,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91, p.124.
2. 大韓病理學會 : 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pp.436-437.
3. 周小寒 外 : 常見疾病的飲食,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p.24.
4. 裴元植 : 最新漢方臨床學, 서울, 南山堂, 1981, p.519.
5. 裴元植 : 上揭書, p.519.
6.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p.61.
7. 邱仕君 : 何謂肥胖症?如何防治?, 新中醫, 1989, 8:55.
8. 裴元植 : 上揭書, p.520.
9. 朴炳昆 : 增補漢方臨床四十年, 서울, 大光文化社, 1988, pp.323-324.
10. 王光權 : 減肥法初探, 浙江中醫雜誌, 1985, 3:128.
11. 姬孝斌 外 : 張晔如老中醫化痰祛癆治療單純性肥胖症的經驗, 陝西中醫, 1991, 2:49.
12. 閔庚勳 : 滲濕湯 및 加味滲濕湯이 肥滿에 미치는 影響, 大田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2.
13. 趙洪健 : 스트레스병과 火病의 한방치료, 서울, 열린책들, 1991, p.216.
14. 周小寒 外 : 上揭書, p.24.
15. 金東揮 外 : 最新診斷과 治療, 서울, 藥業新聞出版局, 1986, p.605.
16. 上海第一醫學院《實用內科學》編輯委員會 : 實用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958.

17. 黃義完 : 心身症, 서울, 행림출판, 1985, p.114.
18. 金定濟 外 : 東醫肝系內科學, 서울, 集文堂, 1986, p.232.
19. 裴元植 : 上揭書, p.519.
20. 羅邦堯 外 : 內科疾病臨床思惟指南, 上海, 上海翻譯出版公司, 1987, p.144.
21. 羅邦堯 外 : 上揭書, p.144.
22. 醫學教育研修院 : 上揭書, p.124.
23. 洪元植 : 上揭書, p.61.
24. 洪元植 : 上揭書, p.94.
25. 洪元植 : 上揭書, p.220.
26. 洪元植 : 上揭書, p.219.
27. 洪元植 : 上揭書, p.275.
28.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586.
29. 張介賓 : 上揭書, p.547.
30. 劉河間 :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282.
31. 李東垣 外 : 東垣醫書十種, 脾胃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70.
32. 朱震亨 : 丹溪心法, 北京, 中國書店, 1986, p.19.
33. 李中梓 : 醫宗必讀, 臺南, 綜合出版社, 1976, p.210.
34. 陳士鐸 : 石室秘錄, 서울, 杏林書院, 年度未詳, p.76.
35. 喻嘉言 :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6, p.884.
36. 傅青主, 葉天士 : 傅青主男女科, 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4, p.106.
37. 陳修園 : 陳修園醫書五十種, 醫學實在易,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8, p.226.
38. 徐大椿 : 徐大椿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卷上, p.195, 960.
39. 傅青主, 葉天士 : 上揭書, p.193.
40.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76, 卷一, p.6.
41. 北京中醫醫院, 北京市中醫學校 : 實用中醫學, 北京, 北京出版社, 1981, p.92.
42. 中醫研究院 : 中醫症狀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43.
43. 裴元植 : 上揭書, p.519.
44. 奚彩菀 外 : 康靈減肥合劑治療單純性肥胖病報告, 中醫雜誌, 1989, 5:45.
45. 邱仕君 : 上揭書, p.55.
46. 陳瑞英 : 單純性肥胖症的辨證論治(附100例分析), 新中醫, 1989, 4:15.
47. 申屠瑾 : 800例單純性肥胖患者與中醫分型的關係, 中國醫藥學報, 1990, 6:22-23.
48. 塗建中 : 肥胖症的中醫藥治療近況, 上海中醫藥雜誌, 1989, 8:33.
49. 周文泉 外 : 肥胖症的中醫治療, 雲南中醫雜誌, 1984, 1:57-58.
50. 江幼李 : 肥胖的中醫治療, 北京中醫學院學報, 1985, 2:27.
51. 姬孝斌 外 : 上揭書, p.49.
52. 林學意 : 減肥輕身湯治療單純性肥胖病33例, 福建中醫藥, 1990, 6:30.
53. 王光權 : 上揭書, p.128.
54. 李振凜 外 : 鍼刺減肥300例療效分析, 上海鍼灸雜誌, 1988, 3:8.
55. 趙銀龍 : 單純性肥胖症治從胃熱, 陝西中醫, 1991, 5:212.
56. 曲竹秋 外 : 從肝論治單純性肥胖病40例臨床觀察, 北京中醫雜誌, 1987, 3:24.
57. 王富春 外 : 鍼灸減肥140例療效觀察, 北京中醫雜誌, 1988, 6:39.

58. 張 炬 : 肥胖伴糖尿病一例治驗, 北京中醫學院學報, 1986, 6:37.
59. 顧兆軍 : 鍼刺治療肥胖症一例, 江蘇中醫雜誌, 1986, 11:28.
60. 張介賓 : 上揭書, p. 547, 586.
61. 喻嘉言 : 上揭書, p. 884.
62. 李中梓 : 上揭書, p. 210.
63. 陳士鐸 : 上揭書, p. 76.
64. 中醫研究院 : 上揭書, p. 43.
65. 周文泉 : 上揭書, p. 57.
66. 江幼李 : 上揭書, p. 27.
67. 谷竹秋 外 : 上揭書, p. 24.
68. 趙銀龍 : 上揭書, p. 213.
69. 姬孝斌 : 上揭書, p. 49.
70. 金東輝 外 : 上揭書, p. 605.
71. 松岡健平 外 :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 서울, 일월서각, 1987, pp.130-132.
72. 黃義完 : 上揭書, p. 115.
73. 金定濟 外 : 上揭書, p. 234.
74. 婁元植 : 上揭書, p. 520.
75. 朴炳昆 : 上揭書, pp. 323-324.
76. 奚彩菟 外 : 上揭書, pp. 44-45.
77. 周文泉 外 : 上揭書, pp. 59-60.
78. 張 超 外 : 上揭書, p. 48.
79. 顧兆軍 : 上揭書, p. 28.
80. 張 炬 : 上揭書, p. 37.
81. 王富春 外 : 上揭書, p. 39.
82. 曲竹秋 外 : 上揭書, p. 24.
83. 塗建中 : 上揭書, p. 33.
84. 劉樹華 外 : 達原飲降脂減肥38例臨床觀察, 陝西中醫, 1991, 2:59.
85. 姬孝斌 外 : 上揭書, p. 49.
86. 邱仕君 : 上揭書, p. 55.
87. 江幼李 : 上揭書, pp. 27-28.

參 考 文 獻

1.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1976.
2. 金東揮 外 : 最新診斷과 治療, 서울, 藥業新聞出版局, 1986.
3. 金定濟 外 : 東醫肝系內科學, 서울, 集文堂, 1986.
4. 大韓病理學會 : 病理學, 서울, 高文社, 1990.
5. 朴炳昆 : 漢方臨床四十年, 서울, 大光文化社, 1988.
6. 婁元植 : 最新漢方臨床學, 서울, 南山堂, 1981.
7. 醫學教育研修院 : 症狀別臨床檢査,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91.
8. 趙洪健 : 스트레스병과 火病의 한방치료, 서울, 열린책들, 1991.
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1.

10. 黃義完 : 心身症, 서울, 행림출판, 1985.
11. 閔庚勳 : 滲濕湯 및 加味滲濕湯이 肥滿에 미치는 影響, 大田大學校碩士學位論文, 1992.
12. 羅邦堯 外 : 內科疾病臨床思惟指南, 上海, 上海翻譯出版公司, 1987.
13. 范永升 : 素問玄機原病式新解, 浙江,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4.
14. 傅青主, 葉天士 : 新編傅青主男女科·葉天士女科, 서울, 大星文化社, 1984.
15. 徐大椿 : 徐大春醫書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16. 上海第一醫學院《實用內科學》編輯委員會 : 實用內科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17. 喻嘉言 : 醫門法律, 서울, 東南出版社, 1986.
18. 劉河間 : 劉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19. 李東垣 外 : 東垣醫書十種, 脾胃論, 서울, 大星文化社, 1983.
20. 李中梓 : 醫宗必讀, 臺南, 綜合出版社, 1976.
21. 張介賓 :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22. 周小寒 外 : 常見疾病的飲食,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78.
23. 朱震亨 : 丹溪心法, 北京, 中國書店, 1986.
24. 中醫研究院 : 中醫症狀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25. 陳士鐸 : 石室秘錄, 서울, 杏林書院, 年度未詳.
26. 陳修園 : 陳修園醫書五十種, 醫學實在易, 臺北, 新文豐出版有限公司, 1978.
27. 江幼李 : 肥胖的中醫治療, 北京中醫學院學報, 1985.
28. 顧兆軍 : 鍼刺治療肥胖症一例, 江蘇中醫雜誌, 1986.
29. 曲竹秋 外 : 從肝論治單純性肥胖病40例臨床觀察, 北京中醫雜誌, 1987.
30. 邱仕君 : 何謂肥胖症?如何防治?, 新中醫, 1989.
31. 塗建中 : 肥胖症的中醫藥治療近況, 上海中醫藥雜誌, 1989.
32. 申屠瑾 : 800例單純性肥胖患者與中醫分型的關係, 中國醫藥學報, 1990.
33. 王光權 : 減肥法初探, 浙江中醫雜誌, 1985.
34. 王富春 外 : 鍼灸減肥140例療效觀察, 北京中醫雜誌, 1988.
35. 劉樹華 外 : 達原飲降脂減肥38例臨床觀察, 陝西中醫, 1991.
36. 李振凜 外 : 鍼刺減肥300例療效分析, 上海鍼灸雜誌, 1988.
37. 林學意 : 減肥輕身湯治療單純性肥胖病33例, 福建中醫藥, 1990.
38. 張 炬 : 肥胖伴糖尿病一例治驗, 北京中醫學院學報, 1986.
39. 趙銀龍 : 單純性肥胖症治從胃熱, 陝西中醫, 1991.
40. 周文泉 外 : 肥胖症的中醫治療, 雲南中醫雜誌, 1984.
41. 陳瑞英 : 單純性肥胖症的辨證論治(附100例分析), 新中醫, 1989.
42. 奚彩菀 外 : 康靈減肥合劑治療單純性肥胖病報告, 中醫雜誌, 1989.
43. 姬孝斌 外 : 張樞如老中醫化痰祛瘀治療單純性肥胖症的經驗, 陝西中醫, 1991.
44. 松岡健平 外 :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 서울, 일월서각, 1987.